“광주와 가자, 닮은 아픔”…목숨 걸고 기록한 두 기자

힌츠페터상공동수상자 모하메드·벨랄씨

“5·18 민주화운동 역사에 깊은 공감”
민주묘지 참배…가자 희생자 떠올려
학살로 동료 잃었지만 취재 이어가
외신 접근 제한 속 전쟁 참상 기록


2026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대상 공동 수상자인 벨랄 알 사바그(왼쪽)씨와 모하메드 아베드 알바바씨.

“1980년 오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는 역사가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겪어온 경험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2026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대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 공동 수상자 모하메드 아베드 알바바(58)·벨랄 알 사바그(35)씨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영상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됐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는 대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을 비롯해 뉴스상, 특집상, 유영길상, 오월광주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가자(Inside Gaza)’로, 엘렌 람 트롱과 얀 올리비에, 모하메드 아베드 알바바, 벨랄 알 사바그 등 4명이 공동 수상했다.

인사이드 가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약 7개월간 외신 기자들의 접근이 제한된 가자지구에서 현지 언론인들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는 과정을 담았다.

두 사람은 팔레스타인 출신이자 프랑스 AFP통신 소속으로, 모하메드씨는 20여년간 사진기자로 활동하며 다섯 차례 전쟁과 아랍권 국가의 혁명 등을 취재했고, 벨랄씨는 10년간 영상기자로 활동했다.

두 기자는 당시 취재 상황에 대해 이전 전쟁과 달리 사전 경고 없이 공격이 이어지면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모하메드씨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가족들의 안전까지 걱정하며 취재를 이어갔다”며 “동료 기자들이 목숨을 잃는 등 당시 상황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들은 5·18묘역을 참배하면서 가자지구에서 마주했던 희생자들을 떠올렸다.

모하메드씨는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니 가자지구에서 참석했던 수많은 장례식이 생각났다”며 “광주 시민들과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벨랄씨도 “한국 방문을 앞두고 5·18의 역사를 알게 됐다”며 “광주 민주화운동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들은 힌츠페터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를 방문하게 된 데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모하메드씨는 “지난해 동료들을 통해 힌츠페터상의 의미를 알게 됐고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꼭 광주에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곳에서 접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한편 2026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은 5일 오후 6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옛 전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연상 기자

광주경실련, 창립 36주년 기념 후원의 밤 개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4일 “전날 JS웨딩컨벤션에서 내외빈과 회원들을 초청해 ‘광주경실련 창립 36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보조금 0% 원칙을 지켜오며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실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36년 간 활동해 온 광주경실련이 그간의 활동과 발자취를 돌아보고, 회원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소통과 후원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경실련의 활동을 꾸준히 응원해 온 10년 이상 장기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뮤직스페이스 공감의 바리톤 박원 대표가 축하공연을 선보였으며, 조연성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위기를 넘어 광주전남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36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시민의 힘으로, 더 정의로운 내일로’라는 새로운 구호 아래 시민과 함께 더 정의로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감시자이자 정책적 대안 제시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구례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4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 구례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가 주관한 행사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기고 교류하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해 별도 단상을 설치하지 않고 객석과 같은 높이에서 진행했다. 수어 통역도 제공해 청각장애인의 행사 참여를 지원했다.

이날 장애인복지 유공자 2명에게 구례군수 표창이 수여됐으며 국회의원·구례군의회 의장·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 표창도 각각 전달됐다. 지역 장애인을 위한 후원 활동을 이어온 허재근 산동농협 조합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장애인 이동과 여가·문화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필요한 돌봄과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장애가 아닌 가능성을 바라보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목포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국악 집중캠프 성료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4일 “최근 2박 3일간 목포시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의 예술적 역량 강화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M-청소년 국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원으로 마련된 캠프에는 판소리·창극단과 국악오케스트라 소속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파트별 전문 교육과 개별 연습을 거쳐 서로 다른 국악 장르를 하나의 합동 무대로 완성하기 위한 리허설과 오케스트라 합주에 매진했다.

특히 개인 기량 향상을 넘어 서로의 소리와 연주에 귀 기울이며 호흡을 맞추는 협업 과정에 중점을 둬 학생들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호흡을 맞춰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벅찬 성취감과 국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M-청소년 국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판소리·창극단과 국악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농협 전남·경북본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4일 “최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에서 농협 경북본부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송형곤 전남광주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김주원 농협 경북본부장 등이 참석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양측은 전남·경북 관내 범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2천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교차 전달했다.

특히 양 기관은 2024년부터 3년째 기부금 교차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우호 협력을 굳건히 다지고 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3년 연속 영호남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농촌을 살리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담양교육청 ‘찾아가는 발명교실’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는 4일 “전날 관내 담양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지역아동센터 연계 찾아가는 발명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발명 기회를 제공해 자존감을 높이고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학생들은 ▲담양을 나타내는 키링 만들기 ▲생태모빙 단풍나무 헬리콥터 만들기 ▲공간감 향상 소마큐브 만들기 ▲승화전사 머그컵 만들기 ▲DIY 연필꽂이 만들기 등 5회차에 걸쳐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을 경험했다.

특히 ‘담양을 나타내는 키링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해 학생들의 높은 애향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발명교육 소외지역, 방과후 돌봄 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확대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미소다, 4천만원 상당 영양보조식품 기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 사랑의열매)는 4일 “프리미엄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미소다가 최근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원 상당의 영양보조식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미소다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전남 사랑의열매에 4천324만원 상당의 영양보조식품 1천8개를 기부해 아동·노인·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했으며, 건양대병원에도 입원 아동들의 영양 보충을 위한 동결건조 유아식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예림 미소다 대표는 “이번 기부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나눔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북부소방, 산불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소방서는 4일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 마을과 목조문화재 등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불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소방활동 여건을 확인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부소방은 다음달 15일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혁환 북부소방서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백운지구대, 경로당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광주 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는 4일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보행자 교통사고·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사고예방을 위해마련됐다.

박이석 백운지구대장은 “고령층은 보이스피싱과 교통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지역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부음

▲박경한(향년 93세)씨 별세, 박균섭·균철·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최정희·고지연·이병희씨 시부상, 박창용·전용·민용·소영·승민·주영·해강·정훈씨 조부상 = 발인 6일 오전 9시 전남광주 빛장례식장 특1호실, 장지 함평 나산 선영.(062-452-4000)

▲서재홍(조선대학교 전 총장·향년 77세)씨 별세, 이봉희씨 남편상, 서성현·세은·자은씨 부친상, 정수윤·김우중씨 장인상=빈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발인 6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이천 에덱낙원(062-231-8902)